



강북구 관내 저소득가정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다녀와서...

글 | 기술지원팀 김진형 (No. 121174)

늦은 여름, 서울의 하늘은 뿌옇고 날은 덥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고 있는 내 이마에 어느덧 달콤한 땀방울이 흐르고 있다.

“똑! 똑! 똑! 계십니까? 저희는 강북구 관내 전기시설 무료점검을 하기 위해 나온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직원들입니다.” 낮선 이의 방문이라 잠시 경계하는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가구가 반가운 기색으로 우리를 맞이해주셨다.

“잠깐 점검 좀 하겠습니다. 전기를 사용하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우리일행들은 방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고장난 콘센트와 스위치, 수명이 다된 형광등 등을 점검하여 교체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잠시 주춤하시다가도 시간이 지나 말문이 트이시면 고장난 스위치나 콘센트 등을 이야기 하시고 때로는 고장난 자신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시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셨다.

대상 가구의 대부분이 혼자 생계를 유지하며 돌보아 주는 이 하나 없는 독거노인들이어서 마음이 더 안타까웠다. 진정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두운 방을 비쳐줄 등불만이 아니라 외로움의 방을 밝혀 비쳐 줄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것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다. 개보수를 하는 동안 고맙다고 자신이 마시려던 요구르트를 흔쾌히 내어주시던 할머니, 10번이 넘게 고맙다고 말씀하셨던 할아버지, 밥이라도 잡수고 가라고 붙잡던 노부부 등, 한분 한분 모두 정겨운 분들이었다.

가끔은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들도 부탁하시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텔레비전이 안 나와요, 싱크대가 물이 세네요, 보일러 좀 고쳐주세요” 등... 우리일행은 다 고쳐드릴 수만 있다면 고쳐드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요구 사항이어서 더욱 안타까웠다. 혼자 할 수도 없고, 고칠 돈도 없고, 어디에다가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더 잘 알고 있기에 다음 대상 가가로 발걸음을 옮길 때면 죄송한 마음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협회에 입사한지 벌써 4년이 지났다. 선배 전기인들을 만나고 많은 전기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전기기술자로서의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느끼곤 한다. 예전에 정년이 지난 한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그분이 젊으셨을 때는 사무직 업무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부러웠었다. 친구들에 비해 대우도 부족하고 입지도 작은 것 같아 처음에는 좀 힘드셨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본인뿐이라며, 전기를 업으로 선택하신 것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이 가득하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후배인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무엇인가 사회가 나에게 할 일을 부여했다는 것은 축복 받은 일인 것 같다. 그 축복에 항상 감사하며 그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사는 삶. 이러한 삶이 전기인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치 있게 사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살아갈 때 전기인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olleh! electric engineer! ❖